

옛 오모리구 재판소

오모리 마을은 1600년대 초기 에도(현재의 도쿄)의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를 설치한 이후 이와미 은광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1867년 도쿠가와 막부가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로 되돌리려던 혁명군에게 정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에는 메이지 천황(1852~1912)을 국가 원수로 하는 새로운 체제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로 오모리는 도쿠가와 가문의 비호 아래에서 누렸던 특별한 지위를 잃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모리에는 경찰서와 세무서, 우체국이 만들어졌고 입헌정부가 출범한 1890년에는 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오모리와 인근의 49개 마을을 관할했던 오모리 재판소의 건물은 19세기 후반 일본에 소개된 서양 건축의 영향을 받아 1888년에 준공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까지 공민관(지역 주민을 위한 회관)으로 이용되다가 오모리 마을 경관이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재판소 건물은 오모리 마을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오모리의 민가를 복원한 모형이나 복원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의 전시 외에도 메이지 시대 법정의 모습을 마네킹으로 재현하여 건물이 거처온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계단 높은 곳 중앙에 있는 의자에는 재판관이, 그 좌측에는 서기가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 우측의 비어있는 의자는 검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계단 낮은 자리에 있는 마네킹은 재판소의 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바로 앞 책상에는 피고인과 변호사가 앉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관과 검사가 나란히 앉아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낮은 곳에 있는 피고인을 내려다보는 배치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까지 일본의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형태였습니다.